

이원론적 성령 사역?: 성령의 증거와 조명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중심으로



이신열(고신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칼빈의 성경관과 성령론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을 생각할 수 있다. 칼빈에게 성령의 조명이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는가의 문제가 바로 삶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신앙의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의 조명은 그에게 중요한 교리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¹⁾ 이는 칼빈의 성경관을 고찰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라는 차원에 머무르는 연구 동향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연구서들은 칼빈이 주장하는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다룬 후에 성령의 증거를 고찰함으로써 그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1)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4), 173f; H. Jackson Forstman, *Word and Spirit: Calvin's Doctrine of Biblical Authority*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1962), 77f.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다름에 있어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 대표적인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성령의 증거'는 다루지만 '조명'은 사실상 다루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는 성령의 증거를 다루고 이 가르침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논증,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비적 견해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그는 이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령의 증거가 구원과 관련된 그의 사역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정의한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조명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루이스 벌코

성령의 조명은 단순하게 성경에 대한 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니게 되는 신앙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칼빈 연구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에 대한 연구 결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실제로 대하는 태도 (attitude)와 이에서 비롯되는 신앙의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께 다룰 가능성을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성령의 조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는 자연스럽게 말씀에 근거하는 그리고 이에서 비롯되는 신앙의 문제와 연관되어진다. 그렇다면 칼빈에게 성령론은 성경관과 신앙관을 연결해주는 고리임이 분명하지만 그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정확하게 고리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칼빈의 성경관과 신앙론 사이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에 앞서 먼저 칼빈이 주장하는 성령의 조명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성령의 증거와 비교하면서 고찰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비교 고찰에 근거하여 성령의 조명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시킨 후에 칼빈이 말하는 성령의 조명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니게 된 사람이 이러한

프, 『조직신학 상 서론 신론 인간론』, 권수경 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0), 195-96. 이와는 달리 밀라드 에릭슨 (Millard J. Erickson)은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는 성령의 조명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령은 신자의 삶에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며,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죄의 결과들을 되받아 치신다." 이 점에 있어서 밀라드는 사실상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증거와 굳이 구분하지 않고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는 더 큰 범주 내에서 양자를 사용하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밀라드 J. 에릭슨, 『복음주의 조직신학 서론 신론』, 신경수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0), 291, 281-85.

성경 이해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고취하게 되된다. 본 논문에서 집중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조명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사역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II. 성령의 증거

칼빈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말씀에 대한 증인임을 밝히면서 성령의 증거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증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쳐지기 전에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²⁾ 즉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인간들이 받아들일도록 만드는 도구임을 칼빈은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 하늘에서 비롯 되었으며³⁾ 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으로 여기게 된다.⁴⁾

그 결과 성령의 증거는 그 특성상 성경이 지닌 권위에 관하여 우리가 품게 되는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확실성’을 제공해 준다.⁵⁾ 이는 그 어떤 인간적 이성, 견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오직 ‘성령의 비밀스러운 증거’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⁶⁾ 그러나 칼빈은 이 확실성이 성경에 대한 경외감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지닌 독특성과 탁월

2) Calvin, Inst. I.7.4

3) Ibid.

4) Calvin, Inst. I.7.1

5) Ibid.

6) Calvin, Inst. I.7.4

함, 그리고 장엄함 때문에 일종의 경외감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⁷⁾ 이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여하시는 인치심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획득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칼빈이 주장하는 성령의 증거의 결과로 주어지는 확실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이 확실성의 특징은 믿음과 관련된 것으로 불신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해서 칼빈은 “불신자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믿음에 의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⁸⁾ 성령의 증거는 이렇게 믿음과 관련되는 것이 사실이며 칼빈은 이를 “영원토록 의심할 수 없는 믿음으로서 모든 추측들을 반드시 초월한다.”⁹⁾고 주장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지식에서 출발하여¹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뜻한다.

둘째, 이 확실성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된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한다. 그는 “단지 성경의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설득 (inner persuasion)에 그 기초를 설정할 때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¹¹⁾고 주장한다. 이 설명은 성령의 증거로 주어지는 확실성은 최종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 (딤후 3:16)에 관계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설득이 성경의 권위와 그 신적 기원에 대한 확실성에 관계할 뿐 아니라 이 확실성이 또한 구원에 이

7) Calvin, Inst. I,7.5

8) Calvin, Inst. I,8.13

9) Calvin, Inst. I,6.2

10) Calvin, Inst. I,6.1

11) Calvin, Inst. I,8.13.

르는 지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칼빈이 말하는 성령의 증거는 사실상 그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성령의 내적 설득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주장하는 성경의 신적 권위와 그 신적 진정성에 대한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 성령의 내적 설득 또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왜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답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에드워드 다우이 (Edward A. Dowey)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칼빈이 성령의 증거를 사실상 성령의 조명과 유사한 기능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종종 두 용어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해답이다.¹²⁾ 이는 칼빈이 적어도 이 용어들의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칼빈과 같은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저술가가 이 용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였거나 또는 이 용어들의 정확성에 커다란 관심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잭슨 포스트만 (H. Jackson Forstman)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조명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동일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성령의 사역이 납득 (convincing)과 설득(persuasion)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¹³⁾ 이 해답은 성령의 증거와 조명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는 다우이의 견해와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 즉 성령의 증거와 조

12)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174.

13) Forstman, *Word and Spirit*, 75. 그는 이사야 54:13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예로 들고 있다. CO 37, 276.

명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성령의 사역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 중복되는 부분이 바로 칼빈이 성령의 증거를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러나 포스트만은 칼빈의 사고에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중복이 허용되었는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포스트만의 주장은 성령의 증거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확실성의 특징으로서의 믿음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앞서 우리가 살펴 본 바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포스트만은 칼빈의 견해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의 증거와 조명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성령의 증거와 관계되는 믿음은 인간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믿음이라는 이원론적 태도를 취한다.¹⁴⁾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서로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는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그 자체로서 그 믿음의 소유자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¹⁵⁾ 성령의 증거를 통해 주어진 확신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이며 성경의 신적 기원과 그 신적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인간의 주관적 측면과는 관계없다는 이원화된 구도가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만이 여기에서 오해하였던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용어가 지닌 내적 차원이 객관적이라는 차원에 국한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I권 8장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포스트만이 여기에서 놓치게 된 것은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신적 측면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에 인치심을 제공한다는 측면이라고 볼 수

14) Ibid., 39, 41-42.

15) Ibid., 72.

있다. 성령의 증거라는 가르침을 통해 칼빈이 의도하였던 바는 객관적인 성경이 주관적인 성경을 통해 수용된다는 이원론적 구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원론적 구도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밝힌다. 이런 맥락에서 오토 베버 (Otto Weber)는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성경과 성경의 독자라는 객관성과 주관성이라는 이원론적 구도에 내재하고 있는 양극성이 극복되며 이를 통하여 성경이 지닌 신적 권위가 확증된다고 보았다.¹⁶⁾

셋째, 크루쉬 (Werner Krusche)는 칼빈이 말하는 성경의 신성 (Goettlichkeit)를 증거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성경의 내용 전부를 확실하게 신뢰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¹⁷⁾ 이 경우 성령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진정성, 약속의 유효성, 신적 호의 (Wohlwollens), 우리의 양자됨 (adoptio), 그리고 복음의 모든 교리들을 확증하는 것이다.¹⁸⁾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의 ‘조명’과 더 가까운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크루쉬는 칼빈의 ‘증거’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는 칼빈이 성경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둘로 나누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크루쉬는 주장하였다. 즉 앞서 언급된 다우이의 경우처럼 칼빈이 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칼빈의 성령의 조명에 대

16) Otto Weber, Foundations of Dogmatics,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81), 244-45.

17)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217.

18) CO 49,10 (롬 1:4); CO 49,310 (고전 1:6); CO 49,310 (고전 1:6); CO 51,153 (엡 1:14); CO 49,342 (고전 2:12); CO 47,147 (요 6:40); CO 49,341 (고전 2:11).

한 이해에는 이 가르침이 성경의 신적 권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의 내용에 관계하고 또한 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성령의 조명

다우이는 칼빈이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다.¹⁹⁾ 첫째, 조명은 성경에 관한 것으로 성령의 증거와 거의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에 성경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이를 인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하여 성경의 신적 권위가 확립된다. 이는 사실상 칼빈이 ‘성령의 증거’라는 용어를 ‘성령의 조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⁰⁾ 둘째, 조명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²¹⁾ 셋째, 조명은 인간의 이해력에 작용하며 그 의지를 청결하게 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수용하도록 만든다. 이는 칼빈의 회개와 중생의 교리에 관한 것이며 <기독교강요> 제 3권에 나타난 모든 성령의 구원론적 사역을 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²²⁾ 넷째, 조명은 선택의 교리와 관련하여 ‘효과적’(effectual) 또는 ‘내적’(internal)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칼빈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decree)으로서의 선택이

19)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149-50.

20) 다우이는 이러한 경우가 <기독교 강요> 1권 6-9장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Ibid.*, 174.

21) Calvin, *Inst.* II,2.18-25.

22) Calvin, *Inst.* III,1-3. 크루쉬는 성령의 조명이 이렇게 중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사역의 결과로 새로운 피조물(schoepfung)이 주어진다고 보았다. Krusch,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260.

어떻게 설교 (preaching)를 통해서 택자들에게만 이해되어 적용되는가를 성령의 조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²³⁾ 다섯째, 조명은 성령에 효용성(effectiveness)을 부여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불가식적 은혜에 대한 가시적 표현인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²⁴⁾

성령의 조명이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칼빈의 주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도출할 수 있는가?

첫째, 성령의 조명은 사실상 이미 전해지고 기록된 교리를 깨닫도록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칼빈 자신이 성령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그의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그의 교리가 지닌 진리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기대할 수 없다.”²⁵⁾ 따라서 성령은 모든 신자들의 스승이지만 그가 가르치는 것은 이미 증거된 것들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²⁶⁾ 그러나 조명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단순히 이미 주어진 가르침에 대한 반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건전한 마음(sound mind)을 제공함에 성령의 조명의 의미가 발견된다.²⁷⁾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⁸⁾ 이러한 인간 본성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지식을 왜곡하여 이를 무익한 지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부여되는 건전

23) Calvin, Inst. III,24.

24) Calvin, Inst. IV,14.8-10.

25) Calvin, Inst. IV.8.13.

26) Forstman, Word and Spirit, 76.

27) CO 38,674 (렘 31:19); CO 49,344 (고전2:14).

28) Calvin, Inst. III,2.34.

한 지식 (sound knowledge)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 우리에게 유순함이 주어지게 된다.²⁹⁾ 성령의 조명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땅히 지녀야 할 경외감, 겸손함, 그리고 순종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칼빈은 복음을 대하는 자가 지녀야 할 태도로서의 겸손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스승으로 여기기를 원하고, 그의 성령이 겸손하고 조용한 자들에게 (사 66:2)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니는 것이 마땅하다.”³⁰⁾

둘째, 여기에 언급된 다섯 가지 영역 중 첫째 영역, 즉 성경을 제외하고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이를 확증하는 기독교론적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구속 사역의 개별적 적용으로서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징하는 성례는 모두 기독교론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의 조명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감추려는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상기시킨다 (요 14-16). 칼빈이 성령의 조명을 종종 성령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정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³¹⁾ 그가 판단하였던 성령의 주된 사역은 믿음인데 이 믿음도 성령의 조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²⁾ 즉 조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와 관계된 모든 교리들 (구속 사역, 선택, 성례)이 지닌 의미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건전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성령을 통하지 아

29) CO 32,270 (시 119:125).

30) CO 48,192 (행 8:31).

31)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173.

32) Calvin, *Inst*, III,24.17.

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 (요 6:44)은 조명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³³⁾

셋째, 성경에 대한 조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우이는 ‘조명’과 ‘증거’를 동일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더 기본적(more basic)이고 광범위하다 (comprehensive)는 견해를 표명한다.³⁴⁾ 물론 다우이가 이러한 동일성을 교리적 정확성에 양보하여 후자를 성경의 확증에 대한 전문적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양자를 차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양자가 동일하다는 다우이의 주장이 어떤 측면에서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 있는가? 칼빈이 주장하는 조명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주어진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확증하는데 그 본질이 놓여 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신적 권위를 지닌 책이며 이는 교회가 확증할 수 없는 것이다.³⁵⁾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그 권위가 확증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이해하였다. 성경이 신적 권위를 지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이미 진리이며 교리이다. 성경의 신적 권위와 그 진정성을 확증하는 행위인 성령의 증거는 사실상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 추구에 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 대한 성령의 증거는 그 자체로서 성령의 조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³⁶⁾

그리고 ‘조명’이 ‘증거’보다 더 기본적이며 광범위하다는 다우이의 주장은 전자가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볼 때 정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고찰될

33) Calvin, Inst. III.1.4; CO 47.149 (요 6:44).

34)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173.

35) Calvin, Inst. I.7.2

36)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174.

때, 다우이의 주장은 정확한 논리적 선후 관계에 근거한 고찰이 아님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성령의 ‘증거’가 가져다주는 믿음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며 이는 동시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믿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한 믿음과 이에 근거한 지식이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의 ‘조명’이란 불가능한 것이다.³⁷⁾ 그렇다면 성령의 ‘증거’는 논리적으로 ‘조명’보다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³⁸⁾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증거’보다 더 기본적이며 광범위한 개념임이 분명하지만 전자가 후자에 근거해있다는 주장이 첨가되어야 양자의 관계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될 것이다.

IV.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성경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의 내적 스승이신 성령의 사역에 관한 칼빈의 주장은 믿음의 측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신적 권위와 그 기원, 그리고 신적 진정성에 대한 확증에 관계되는 성령의 증거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그에 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성령의 증거는 성경에 대한 확증을 동반하

37) E. David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Leiden: E. J. Brill, 1966), 120ff. 윌리스는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이 구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중적 (twofold)인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속주로 자신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사실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적 말씀 (the redemptive Word of God)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 (the creative Word of God)이라는 사실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칼빈이 주장하는 구속주에 대한 지식 (cognitio redemptoris)은 항상 창조주에 대한 지식(cognitio creatrois)을 전제로 간주한다고 밝힌다.

38)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127ff:

는 믿음이며 성령의 조명은 사실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제공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칼빈이 이 두 가지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이해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령의 ‘조명’이 ‘증거’보다 더 근본적이며 광범위하다는 주장에서 이 두 종류의 믿음의 성격이 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규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견해가 발견된다.

첫째,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조명’과 ‘증거’가 동일한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³⁹⁾ 이 경우 성령의 사역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두 가지 믿음으로 구분되어 (distinguish) 나타난다고 보았다. 포스트만 (H. Jackson Forstman)이 이런 견해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인물에 해당된다.⁴⁰⁾ 그는 칼빈이 사실상 두 가지 인식론을 가지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즉 믿음을 위한 인식론과 더 광의적 측면에서 성경에 관한 지식을 위한 인식론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¹⁾ 즉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지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믿음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이원론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인식론은 말씀과 성령의 상호관계를 지니지만 성경의 이원론적 차원에 근

39) 네덜란드의 판 데르 린드 (S. van der Linde)는 칼빈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을 고찰함에 있어서 ‘조명’과 ‘증거’를 날카롭게 구분하여 대립시키는 구도를 취한다. 그는 일반적 의미에서 성령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조명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성령의 증거는 사실상 증생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S. van der Linde, *De leer van den Heiligen Geest bij Calvijn* (Wageningen: Veenman, 1943), 77f.

40) Forstman, *Word and Spirit*, 39, 42, 72, 89, 93.

41) *Ibid.*, 38.

거하여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믿음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성격을 표출하게 된다고 포스트만은 주장한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구원을 제공하는 지식은 인격적 (personal)인 반면에 성경에 대한 신뢰는 그 자체로서 객관적이며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⁴²⁾ 구원에 이를 칼빈이 제공하는 믿음의 정의를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자비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이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⁴³⁾ 여기에서 칼빈이 강조하는 바는 개관적 지식에 관한 차원이 아니라 이런 지식적 차원을 넘어서는 개인적 확신 (assurance)에 관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칼빈은 심지어 “믿음의 지식은 이해 (comprehension)가 아니라 오히려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⁴⁴⁾ 그러나 성경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그 자체로서 인격적 차원을 동반하지 않는다. 단지 이 신뢰는 항상 객관적이므로 칼빈의 성경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 ‘나를 위하여’ (erga me) 또는 ‘우리를 위하여’ (erga nos)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⁴⁵⁾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중생의 결과로 주어진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a new self-understanding)를 수반하지만 성경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자아와 동 떨어진 채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확실성을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 대한 신뢰는 성경이 지닌 정보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포스트만은 칼빈이 주장하는 믿음은 사실상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란히 공존하며 그 관계에 대해

42) Ibid., 72, 102.

43) Calvin, Inst. III,2,7.

44) Calvin, Inst. III,2,14.

45) Forstman, Word and Spirit, 103-104.

여 칼빈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우이 (Edward A. Dowey, Jr.)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그의 ‘해석’, 즉 신앙의 대상에 대한 그의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신학적 분석마저도 부조화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신앙의 지식의 대상에 관한 칼빈의 신학에 두 가지 해석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결코 신앙심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수용하는가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믿음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연관시키지 못하였음에 놓여 있다.”⁴⁶⁾ 이는 궁극적으로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일종의 모순 (incongruity)으로 드러난다. 칼빈이 독자적 영감설을 수용한 결과가 그의 신학에 있어서 조화와 체계를 형성하는데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성경과 성령의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증거와의 관계가 사실상 어떠한 긴장 관계 속에 서로 잡혀 있다고 인식하는데서 비롯되는 주장이다.⁴⁷⁾

만약 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이는 외적으로 드러난 그의 작품이나 서신들을 고찰함으로써 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의 신학 전체를 살펴보고 이를 총괄적으로 이해한 후에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신학 전체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가정을 통해 설정될 수 있는 관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우이가 설정하는 관계는 칼빈의 작품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제적 관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신학을 가능하게 하였던 가정 아래 설정될 수 있는 가상적 관계에 해당된다. 다우이는 이를 변증법적 (dialectic) 관계로 파악하였고 그 특성을 따라 ‘이중적 가정’ (double presupposi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⁴⁸⁾ 먼저, 여기서 ‘이중적’

46)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161-62.

47) *Ibid.*, 256.

이런 표현은 두 가지 가정이 서로 다르지만 각각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첫 번째 가정은 구속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또한 구원의 약속을 제공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정은 사실상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가정을 통해 다우이는 사실상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이 성경에 증거된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다우이의 시도는 칼빈이 이러한 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화 속에 놓여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한계를 ‘가정’이라는 도구로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 독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가정은 그의 신학의 중심이 구원론에 있다는 또 다른 ‘가정’을 통해 세워진 가정이며 이러한 구원론적 가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우이의 시도는 칼빈이 내세운 두 가지 지식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실상 그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칼빈 자신의 사실적 사고와 이를 표현한 작품 세계에 드러난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째,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하나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믿음들이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48) Ibid.

독일의 칼빈 연구가인 크루쉬 (Werner Krusche)가 내세우는 주장이다.⁴⁹⁾ 그는 칼빈이 말하는 성령의 증거가 단지 성경의 신적 기원과 그 진정성을 입증하는 형식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실질적 내용적 차원과도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성령의 증거는 성경에 대한 확실성 뿐 아니라 구원에 관한 확실성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라고 크루쉬는 이해하였다. 성령의 ‘증거’가 사실상 성령의 ‘조명’이라는 차원과 동일하게 사용된 경우들을⁵⁰⁾ 예로 들면서 칼빈이 이해하였던 성경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관한 확신과 구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크루쉬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프랑스의 칼빈 연구가 프레이스 (Theo Preiss)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성령의 증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증거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⁵¹⁾ 만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관한 약속들을 믿는 믿음,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믿는 성경에 대한 신뢰와 구별될 수 있다면, 이는 성경의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내용을 더욱 우선시 하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은 그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성경의 형식과 그 신적 기원에 대한 신뢰와 그 내용,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은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크루쉬는 사실상 구원에 이르는 믿

49)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202-18. 특히 216이하. 유사한 견해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S. P. Dee, *Het geloofsbegrip van Calvijn* (Kampen: J. H. Kok, 1918), 166f; B. B. Warfield,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31), 107.

50) 크루쉬에 의하면 이는 주로 칼빈의 성경주석에서 발견된다. 위의 주 18을 참고할 것.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217.

51) Theo Preiss, *Das innere Zeugnis des Heiligen Geistes* (Zuerich: Zollikon, 1947), 14.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217.

음보다 성경에 대한 확신이 논리적으로 더 우선적이라고 밝힌다.⁵²⁾

IV. 이원론적 성령 사역?

칼빈의 성경관과 신앙론을 통해서 살펴 본 그의 성령 이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주제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이 포스트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포스트만은 성경과 믿음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론에 근거해 있으며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믿음이 성경에 대한 확증 (confirmation)과 중생이라는 이원론적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원론적 구도는 그가 주장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두 가지 반응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⁵³⁾ 성경에 대한 믿음은 유순함 (docility)과 이에 따르는 순종 (obedience)을 불러일으키는 반면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자체가 신뢰 (trust)이므로 새로운 중생을 통하여 주어진 자아는 신뢰로 반응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포스트만의 이런 구분이 정당화된다면 칼빈이 이해하였던 성령의 사역이란 사실상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원론적 사역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다우이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원론적으로 날카롭게 구분하기 보다는 성경의 권위와 그 진정성과 관계된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증거로,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구원과 관계된 사역을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함으로써 양자를 대립 (antithesis)과 격리 (isolation)라는 용어의 사용하여 표현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는 칼빈의 작품세계 이면에 나타난 심리적 차원의

52)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218;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131.

53) Forstman, *Word and Spirit*, 129f.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자를 결합시키는 일종의 변증법적(dialectical) 관계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⁵⁴⁾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변증법적 관계란 인간 이성의 영역과는 상관없는 신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단지 부분적으로 믿음으로 수용될 뿐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는 칼빈의 사고 체계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중적 지식 (duplex cognitio Dei)에서 도출된 성령의 사역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연속성 (continuum)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⁵⁵⁾ 다우이는 구원의 근간이 되는 구속주 하나님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이중적 지식의 핵심이라고 파악하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에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성령론적 불연속성 (pneumatological discontinuity)이 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우이가 성령의 사역을 사실상 이원론적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있음이 여기에서 잘 드러난다.

다우이와는 달리 크루쉬는 이 두 영역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에 드러난 연속성을 인정하는 신학적 구도를 지니고 있다. 성령의 사역이란 우주적 차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크루쉬는 출발한다. 성경에 대한 확증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면 동일한 성령이 구원에 관한 확증을 부여하므로 여기에는 성령론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크루쉬의 견해는 포스트만과 다우이가 주장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 또는 성령론적 불연속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성령과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인 삼위일체론적 차원에 관해서는 서론적 고찰에 제한된다.⁵⁶⁾ 그는 칼빈의

54)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238-42, 256.

55) *Ibid.*, 241.

삼위일체론을 내재적 차원으로 분석하면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연결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신성의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성령을 이해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성부와 성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관계론적인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 따라서 크루쉬는 성령의 사역을 우주, 인간, 교회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지만⁵⁷⁾ 성령이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상호관계를 설정하시고 이를 인식시키도록 하는가에 관해서는 고찰하지 않는다.

크루쉬가 지니고 있는 삼위일체론적 결여를 보완하는 시도로서 윌리스(E. David Willis)의 하나님에 관한 이중적 지식 이해를 들 수 있다. 윌리스는 이를 삼위일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고찰한다.⁵⁸⁾ 그가 이를 위해서 내세우는 도구로서 ‘칼빈주의적 바깥’(extra calvinisticum)이라는 기독교론적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삼위일체 제 2위 하나님이신 성자는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성육신을 통하여 육신을 덧입으시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인성은 신성 바깥에 지금도 현존한다는 사고이다. 이 용어는 루터가 주장하는 기독교론적 신인양성의 교류(communio idiomatum)를 통해 그의 인성이 신성을 덧입게 되었다는 주장과 개혁파를 차별화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윌리스는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용어 속에 이미 삼위일체론적으로 말씀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⁹⁾ 성자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은 영원한 말씀이신 창조주

56)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1-13.

57) Ibid., 13-14.

58) 이는 다우이에 의해 일종의 가능성으로 이미 제안되었다.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222.

59)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124-25.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성경에 대한 확증을 제공한다. 성자이신 말씀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창조주이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며 이런 측면에서 그는 곧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곧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해당된다. 또한 성령의 사역은 성육신을 통해 육신을 덧입으신 성자, 곧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이에 근거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제공한다. 따라서 칼빈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사실상 동일한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윌리스가 주장하는 성령 사역의 일원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인 차원에서 고찰해 볼 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육신으로 현현하시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한 것이며 이 지식은 또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즉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적 지식에 기반을 둔 두 가지 믿음은 성자 하나님을 공통된 대상(object)으로 삼는 믿음임이 분명해진다. 성경에 대한 확증과 구원에 대한 믿음은 포스트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이원론적 성령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윌리스는 ‘칼빈주의적 바깥’이란 기독교적 개념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적용하여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중적 지식에 드러난 성령론적 차원을 분명하게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성경에 대한 확증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크루쉬가 주장하는 인간의 확신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원론적 차원에서 수용되어야 할 믿음일 뿐 아니라 삼위일체론적 차원에서 이 두 믿음이 사실상 성자라는 동일한 대상 (object)을 지닌 하나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칼빈의 성령론을 고찰하였다. 칼빈의 성령 이해의 특징은 그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믿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믿음이 사실상 성경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서 칼빈이 말하는 성령의 ‘증거’와 ‘조명’이 의외로 유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성령의 증거를 성경의 신적 권위와 그 진정성에 대한 확증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지만 특히 그의 주석에서 이를 성령의 ‘조명’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여 이를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성령의 조명이라는 용어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성경에 드러난 가르침을 깨우치고 이를 확실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사용되지만 여러 경우에 이 개념이 성경에 대한 확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와 조명과 관련하여 칼빈의 용어 사용에 관해서 지나치게 교리적 잣대로 판단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울러 그가 이 용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였다거나 그 구분에 대하여 관심이 결여되었다는 다우이의 주장 또한 옳바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유동성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칼빈 연구가들은 그가 말하는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그 결과 서로 다른 두 가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이원론적 이해를 추구한다 (포스트만, 다우이).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적 이해는 <기독교 강요>에 드러난 칼빈 신학의 특징을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서 비롯된 이해로서 칼빈의 신학적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칼빈이 주장하는 성령의 사역은 그 자체로서 일원론

적이며 여기에 언급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은 성령이 제공하시는 확신이라는 차원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는 일원론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 (크루쉬). 또한 이를 삼위일체론적 차원에서 고찰해 볼 때 성령의 사역은 결코 이원론적이지 않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이에서 비롯되는 성경에 대한 믿음은 성육신 이전에 말씀의 상태로 계셨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한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성육신 이후의 성자 하나님이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에서 비롯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하나로 연결된다 (월리스). 따라서 칼빈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 하나의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사역을 이원론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